

전주발전 이끌 정책, 시민 손으로

전주시가 시민들이 전주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업들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시정 발전을 견인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전주시 발전 정책 시민공모'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 공모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 시민들의 보다 폭넓은 의견을 토대로 전주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주제는 '우리가 꿈꾸는 도시'로, △공직사업 방안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방안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 방

시, 30일까지 공모 추진

안 △기타 전주발전을 위한 사업제안 등 4개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제안들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경제성·실용성 등을 평가한 뒤 실무부서의 검토와 실무위원회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금상 200만원 등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을 획득한 것이나 이미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메일(yikm25@korea.kr)로 제출하거나 접수시 기획예산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10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시정 발전 정책 제안공모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공감 행정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사회혁신 한마당 자원활동과 모집

전주사회혁신센터, '혁신스틸러' 70여명 전국 각지서

전주시사회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는 오는 15일까지 '2019 전주시 사회혁신 한마당'에서 활약할 자원활동가 70여명을 전국 각지에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가 주관하고, 전주시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19 전주시 사회혁신한마당'은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혁신가를 양성하기 위한 행사로, 10월 18일과 19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의 전당과 차 없는 거리 등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혁신스틸러는 혁신센터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2019 전주시 사회혁신 한마당' 사업을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자원활동가로, 행사지원과 운영, 홍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혁신스틸러로 역할을 발휘하고자 하는 전국 혁신가들은 전주시사회혁신센터 공식 블로그에서 내려받은 신청양식을 작성해 이메일(jssinfesta@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자는 오는 20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1차 교육), 10월 4일 오후 5시로 예정된 2

차 교육을 통해 행사 전 명확한 역할을 숙지하고, 다른 혁신스틸러들과 네트워킹을 도모하게 된다.

혁신스틸러에게는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자원봉사포털 '1365'에 가입된 자는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증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혁신스틸러들은 향후 소통협력공간인 '커먼즈필드_전주' 멤버 가입을 통해 사회혁신 관련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관계자는 "2019 전주시 사회혁신 한마당의 마스코트, 혁신스틸러를 통해 '모든 일상이 새롭고 즐겁게'라는 슬로건에 맞게 명료하고 임팩트 있는 혁신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위대한 변화의 한 페이지를 멋있게 장식할 사회혁신 한마당 서포터즈, '혁신스틸러'와 혁신의 도시로 비상하는 전주를 함께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스틸러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jssinfesta@gmail.com) 또는 전화(070-4173-9582)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밝은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 보내세요”

전주시의회, 추석 맞아 금암노인복지관에 쌀 전달

전주시의회가 추석을 앞두고 4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금암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쌀 10kg 17포를



전주시의회는 덕진구 금암동 금암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쌀 10kg 17포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달했다.

전주시의회 강동화 부의장은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렵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따뜻한 마음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훈훈한 지역사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복지실현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시민 모두가 마음껏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을 전달해왔다.

시의회는 오는 11일까지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위촉

전주시의회가 4일 의정 정책자문기구인 제4기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4명의 신규위원을 위촉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김나림 전주비전대 유아교육과 교수, 도시계획 분야에는 박정원 UB기술사사무소장, 체육 분야에는 최형일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노동·인권 분야에는 남상간 스타노무법인 대표노무사를 신규로 위촉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은 기존 3명 외에 이번엔 4명을 추가 위촉, 다양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분야별 정책 발굴 및 자문활동과 여론 모니터링을 통해 전주시의 당면 현안에 노력하기로 했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의 역할과 기능 강화로 정책 중심의 선진의회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며, "4기를 맞은 정책자문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의회 문경위 현장활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형배 의원)가 4일 팔복예술공장 내 야호 예술놀이터를 방문해 운영 계획을 청취하는 등 전반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는 26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야호 예술놀이터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

야호 예술놀이터 내 공간의 역할과 운영 현황을 들은 문화경제위원회의 원들은 "야호 예술놀이터가 조성된 덕분에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예술 교육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은 "예술교육이 일반시민들에게 접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술놀이터가 건실하고 활발하게 운영되어 전주가 진정한 예술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급대원 폭행 등 강력 대응

남원소방서가 구급대원의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행위 발생시에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 전북지역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7건이며, 이 중 가해자의 88.2%가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폭행으로 벌금 5건, 징역 9건, 재판 중 1건, 기타 2건 등을 조치했다.

이에 따라 남원소방서는 관내 모든 구급차에 영상촬영 장비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영상 녹화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해 행사사건의 증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폭행사고 운영 전담팀(특사경)을 중점 운영 가해자를 조사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치안종합성과 향상 보고회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4일 4층 민원실에서 각 과·계장과 지구대·파출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치안종합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19년 성과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남원서가 그동안 추진해온 치안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성과향상 추진 방향성을 검토하고, 각 가능별 특색에 맞춰 주민민족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통해 주민민족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전북도 새마을부녀회, '효 사랑' 어울마당

14개 시군 70세 이상 어르신 초청

전북도새마을부녀회(회장 김선희)는 4일 알렌시아웨딩컨벤션4층(전주 평화동)에서 도내 70세 이상 노인 300여명을 초청해 시군 및 읍면동 부녀회장 50여명이 봉사자로 참석한 가운데 추석맞이 효사랑 어울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부녀회에서 97년부터 사랑의 노인섬기기 위안잔치와 청와대 효도관광 방문을 2012년까지 꾸준히 실시하여 오다 잠시 중단한 것을 2016

년부터 다시 실시 4년째 추진하게 되었다.

부채춤과 장고춤, 민요, 가요 등 공연과 시군별 노인장기자랑 등 어울마당 시간을 갖고 참석자 전원에게 오찬과 부녀회원이 손수 준비한 다과로 점심을 제공하고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 시군에서는 밀반찬 나눔, 송편, 제수용품 등을 회원들이 손수 준비해 홀로 사는 어려운 노인들께 전달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지검, 인권상담사 4명 위촉

전주지방검찰청은 검찰 수사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원인·사건 관계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최근 심리상담 전문가들을 '인권센터 상담사'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인권상담사는 전주마음샘 아동가족상담센터 송기춘 소장 겸 심리상담사, 노윤진 심리상담사, 노윤진 소장, 희망드림 상담심리연구소 김희은 소장 등 모두 4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사건 관계인이나 검찰 업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민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민원인이나 사건 관계인이자 누구든지 검찰 업무에서 불편함을 느꼈거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경우 인권상담사와 1대 1 무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인권상담사 위촉이 검찰의 인권 보호 가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지난 5월 10일부터 '검찰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 인권센터는 검찰 업무 종사자의 직무 집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 및 고소·고발 사건과 인권정책 제안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 침해에 대해 신고하고 상담한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국민이 제안한 인권정책을 적극 반영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군산·익산지역연합회는 추석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관내 복지시설에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법사랑위원회, 추석맞이 사랑나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희)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군산·익산지역연합회(회장 김동수)는 추석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관내 복지시설에 사랑 나눔을 실천하였다.

군산과 익산 지역 복지시설 10곳에 총 60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군산 경로식당과 익산 일시청소년쉼터 디딤이 직접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익산지역 방문자인 익산일시청소년쉼터 디딤들은 9시부터 24시까지

청소년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가정기능 상실과 가족 내 갈등, 학교부적응으로 힘들어 하는 가출 청소년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최장 7일간의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복지시설로써 체계적인 보호에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전달하였다.

그밖에 관내 장애인시설 및 쉼터,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 재활시설에는 따로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익산=장영림 기자

전주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진기돌·전주초·매화 송천1지구 등 내년 준공 목표

전주시가 과거 상습침수피해가 발생한 재해위험지구를 안전한 마을로 바꾼다.

시는 진기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전마동 일원) △전주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태평동 일원)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팔복동 일원)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송천동 일원) 등 4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상습침수지역 등 지역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우수저류조 시공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생한 전주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대표와의 수차례에 걸친 담담회를 통해 해결 방향을 잡았다.

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법을 저소음·저진동 천공(토네이도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주민대표를 주민참여감독으로 위촉하는 등 주민요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저류조 구간 공사 중 양반이 발견된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노출양반 일부 면적을 보존하고 양반 상부에 스카이워크 및 데크를 설치해 관람환경을 마련하고, 파쇄되는 양반은 저류조 상부에 압석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절충

안을 찾아 부분 설계변경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환경단체는 앞서 이곳에서 발견된 양반이 옛 전주천의 흔적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만큼 원형 그대로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해당 사항을 검토해왔다.

이에 시는 환경단체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시 사업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추가 비용 발생, 양반 주변 고인 물로 인한 주민들의 악취 및 해충 발생 피해 등을 고려해 환경단체와 꾸준히 협의한 끝에 절충안을 찾았다.

시는 공사가 일시 중지됐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해결책을 마련한 만큼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료·주거분야의 구성원을 확대 구성하고, 오는 16일부터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는 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효철 기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전주시, 6개 실무분과 확대·구성... 위원 위촉식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6개 실무분과를 추가 구성했다.

전주시는 4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장봉석 위원장과 실무분과위원으로 신규 추천된 위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간 대표협의체와 실무 협의체, 희망보드미 실무분과, 동 협의체로 구성·운영돼왔으며, 최근 실무분과가 6개 추가되면서 7개 분야 실무분과로 기능이 확대됐다.

추가된 6개 분야는 △장애인분과(11명) △어르신분과(10명) △아동청소년 분과(12명) △여성다문화분과(11명) △보건의료분과(10명) △주거분과(20명)로, 총 74명의 위원이 추

가 구성됐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이번에 실무분과까지 확대 구성한 만큼 각 분과별 위원들이 서로 의기투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등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회장 정원선)는 지난 3일 35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5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참석 위원들은 원활한 통합돌봄 사업의 수행을 위해 복지·보건·의

"한번 더 도와달라" 지지호소

익산시의원 2심도 벌금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된 익산시의원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해 3월 27일 오전 11시께 선거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한 번 더 도와주시면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적극 막겠습니다"라면서 지지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